



봄이 온다, 스위스 테라스로.

스위스 최고의 햇살 가득 테라스

도심 위로, 알프스 속으로 스며드는 봄 햇살

맛있는 음식 한 접시나 음료 한 잔에 묻어나는 봄 정취

스위스 여행 기분 한껏 고조되는

테라스 레스토랑 및 바

봄이 온다. 햇살이 더욱 풍성해지고 공기는 한껏 포근해진다. 겨우내 문을 닫았던 레스토랑들도 다시금 활짝 문을 연다. 카페, 펌, 비스트로도 새봄맞이로 한창이다. 스위스에서도 아름답기로 꼽히는 테라스와 비어 가든을 소개한다. 맛있는 음식이나, 와인 한 잔, 혹은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다. 다가오는 봄을 느끼면서...

1. 페터 크노글(Peter Knogl)의 슈발 블랑(Cheval Blanc), 바젤(Basel)

슈발 블랑에서 식사를 즐긴 기쁨을 느려본 사람이라면 다시 찾고 싶을 만한 곳이다. 소스의 제왕이라 불리는 페터 크노글의 예술적인 요리는 미술랭 스타 3개로 주목을 받아 왔는데, 그 이유를 직접 알아볼 수 있다. 바젤의 5성급 호텔, 레 트루아 루아(Les Trois Rois)에 자리한 레스토랑답게, 라인(Rhine) 강가에 자리한 테라스가 무척 아름답다.

2. 샤토 드 빌라(Château de Villa), 시에르(Sierre)

포도밭 마을 시에르에 있는 고성 레스토랑으로, 비가열 우유로 만든 치즈 5가지로 만든 라클렛, 풍뎉이 같은 치즈 요리, 알프스 고산 돼지고기로 직접 만든 건조육, 발레(Valais) 주 전통 건조육이 빛을 발한다. 신선한 제철 재료로 정통 레시피를 따라 맛있는 요리를 내놓는다.

3. 힐틀 다흐테라세(Hiltl Dachterasse), 취리히(Zurich)

1898년부터 채식 및 비건 요리를 전문으로 내놓는 역사적인 채식 레스토랑이다. 1898년 암브로시우스 힐틀(Ambrosius Hiltl)이 설립한 하우스 힐틀(Haus Hiltl)은 기네스 세계 기록 상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채식 레스토랑이다. 질슈트라세(Sihlstrasse) 거리에 있는 본점은 120년이 넘었다. 레스토랑, 비스트로, 테이크아웃, 힐틀 뷔페, 아카데미 및 스위스 최초의 채식 정육점을 운영한다. 다흐테라세 지점은 반호프슈트라세(Bahnhofstrasse)를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해 있어 아름다운 전망을 선사한다.

4. 호텔 우토 쿨름(Hotel UTO KULM), 취리히(Zurich)

일반 기차를 타고 오를 수 있는 취리히 뒤편 산, 유틀리베르크(Uetliberg) 정상에 있는 호텔이다. 호텔 내의 레스토랑에서는 제철 특선 요리, 미식 요리, 단품 요리를 즐길 수 있는데, 테라스에서 펼쳐지는 전망이 단연코 일품이다. 산과 도시와 호수의 파노라마가 절경을 벗어낸다. 호텔 우토 쿨름은 각기 다른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르누보 양식의 “미라솔(Mirasol)” 연회장부터 이탈리아 디자이너 가구로 단장한 윈터 가든까지, 다양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5. 테라스 라 로티세리(Terrace La Rôtisserie), 취리히(Zurich)

취리히의 슈토르헨(Storchen)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 라 로티세리에도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다. 리마트(Limmat) 강가에 자리한 테이블에서는 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의 쌍둥이 탑과 산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테라스는 날씨가 좋은 날에 한하여 5월부터 10월까지만 연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라 로티세리 레스토랑과 동일한 메뉴를 주문할 수 있다. 라 로티세리는 미술랭 스타 1개와 고미요 점수



17 점을 획득한 미식 레스토랑으로, 슈테판 애켈(Stefan Jäckel)이 헤드 셰프다. 제철 재료로 섬세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이게 클래식 요리를 해석해 기쁨을 선사한다.

6. 발트하우스 바이더 바젤(Waldhaus beider Basel), 바젤(Basel)

세련된 홈메이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바젤 근교의 비르스펠덴(Birsfelden) 마을, 라인 강가에 있는 레스토랑이다. 이곳의 요리는 세 개로 나누어진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 미식 레스토랑, 바 & 라운지, 봄, 여름, 가을에만 운영하는 셀프서비스 부벤테(Buvette)다. 이 부벤테가 테라스에 마련되는 식사 공간인데, 초록 식물과 자연 한복판에서 계절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근거리 식재료 중에서도 최상급만 선별하여 사용한다.

7. 선스타 호텔(Sunstar Hotel), 그린델발트(Grindelwald)

그린델발트의 선스타 호텔에는 파노라마 테라스가 있는 바 & 라운지가 있다.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클래식한 칵테일 메뉴, 청량한 알코올 믹스 음료, 심플하지만 품격 있는 브랜드, 엄선한 와인이 준비되어 있다. 음료를 한 잔 주문한 뒤, 아이거(Eiger)의 진풍경을 감상하면 된다. 출출하다면 달콤한 페이스트리나 알자스 스타일로 구운 바삭한 타르트 플랑베(tarte flambée), 그린델발트 전통 소시지와 치즈 플래터를 즐겨봐도 좋다.

8. 알베르고 리스토란테 알프 그뤼름(Albergo Ristorante Alp Grüm), 알프 그뤼름(Alp Grüm)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의 노선 중간에 있는 알프 그뤼름 역은 파노라마 기차 여정을 즐기든, 하이킹이나 바이킹을 즐기든, 잠시 멈추어 품격 있는 식사를 즐기며 풍경 속에 오롯이 안겨보기 완벽한 장소다. 알베르고 리스토란테 알프 그뤼름의 다채로운 메뉴에는 스위스 및 그라우뷘덴 향토 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 내에서 공수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매콤한 메밀 파스타, 피초케리(pizzoccheri)와 육즙이 훌륭한 코르동 블루를 특히 추천한다. 야외 테라스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베르니나 산맥의 야생적인 풍경과 만년설, 팔뤼(Palü) 빙하, 햇살이 입맞춤하는 발포스키아보(Valposchiavo)의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9. 호텔 비츠나우어호프(Hotel Vitznauerhof), 비츠나우(Vitnau)

루체른(Luzern)에서 유람선으로 찾아갈 수 있는 마을, 비츠나우에는 아름다운 파노라마 테라스 레스토랑이 있다. 비츠나우어호프 호텔이다. 호수 위로 내려앉은 노을을 감상하며 아름다운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저녁 햇살이 그려 내는 따뜻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점심 식사도 가능하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햇살을 즐기며 늦은 점심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아삭한 채소와 육즙 풍부한 고기, 싱싱한 생선을 세련되고 창의적으로 요리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10. 빅토리아 바 & 테라스(Victoria Bar & Terrasse), 인터라켄(Interlaken)

인터라켄에 있는 빅토리아 융프라우(Victoria-Jungfrau) 그랜드 호텔 & 스파에는 아름다운 테라스 바가 있다. 빅토리아 바는 스위스에서 최고의 호텔 바 중 하나로 꼽히는데, 최고급 싱글 몰트, 코냑, 럼 등 다양한 바 메뉴에서 직접 골라볼 수 있다. 아침에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저녁에는 칵테일 한 잔을 즐기기도 좋다. 바의 테라스 석은 인터라켄에서 가장 힘찬 서머 라운지로 꼽힌다. 융프라우 지역의 산세에 흠뻑 빠져 여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다. 핑거 푸드와 클래식한 바 스낵도 내놓는다. 안주 플래터, 버거, 클럽 샌드위치, 다양한 페이스트리를 맛볼 수 있다.

자료 협조: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m